

#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Research Method Analysis

정 동 열(Dong Youl Jeong)\*\*

### □ 목 차 □

- |                          |                        |
|--------------------------|------------------------|
| I. 서 론                   | 3.1 분석대상 및 기준          |
| II. 이론정립과 연구방법론          | 3.2 연구논문의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 |
| 2.1 이론과 실제의 관계           | IV.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의 방향     |
| 2.2 이론정립 과정과 설명영역        | 4.1 이론학문적 발전방향         |
| 2.3 문헌정보학 연구와 연구방법론      | 4.2 운영실무적 발전방향         |
| III.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실증적 분석 | V.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정립과 학문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3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338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과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 본 후,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ABSTRAC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earth of conceptually framed, creative research which has been narrowly focused, fragmented, and designed to solve situational problems. During recent years, a critical concern of scholars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s has been a need for creative research. Research is the critical element for developing a theoretical base in which to enhance practice of the profession and to guide its futur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to (1) delineate various levels of theory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2) analyz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of previous research published in Korea during last two decades, and (3) propose several directions toward theory building in view of both theoretical and operational aspects.

\* 이 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사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가 1993년 6월 24일 속초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논문접수일: 1993년 10월 10일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1950년대 말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1993년 현재 전국 30개 4년제 대학과 6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2개의 일반 대학원(그중 6개 대학원은 박사과정 설치)에서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시점에 문헌정보학계의 학문적 성장과정을 고찰해 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로 모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문의 발전과 성장은 보편적으로 그 분야의 이론개발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연구활동은 생산된 연구물의 양과 질의 평가로 판단된다.

그 동안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거듭되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장이 거듭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계의 발전과 성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문헌정보 이론개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적용내지는 응용될 수 있는 이론의 정립은 극히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지식 축적이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개발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을 근거로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정립과 학문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후, 끝으로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정립과 연구방법론

### 2.1 이론과 실제의 관계

이론이란 일반적으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로 표현되고 있다. 이론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nt(1991)는 "이론이란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으며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진술로서, 그 목적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적인 구조를 통하여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erlinger(1986)는 "이론이란 현상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상을 체계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개념, 정의 또는 명제"라고 하고 있다. 또한 Odi(1982)는 "이론은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부적인 연결성과 논리적인 일치성을 갖는 명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론이란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이론단위(theory unit)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표현하는 체계적이며 실증 가능한 진술로서 그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론은 이론을 구성하는 이론단위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표현하는 진술이다. Dubin(1978)은 사물(thing) 그 자체는 이론단위가 되지 못하며 사물의 성질(property)만이 이론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물 그 자체에 관한 성질간의 상호관련성을 진술할 때 이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과 학부생들이 온라인목록을 몇 회 이용했는가를 조사하여 진술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에 관하여 기술하는 보고서는 될 수 있어도 이론은 아

니다. 그러나 만약 온라인목록에 대한 이용횟수와 문헌검색의 만족도 향상간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여 진술한다면 이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론은 이러한 이론단위들간의 상호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을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 이론의 목적은 현상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이론은 근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알고 싶은 호기심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현상들의 질서에 관한 호기심은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충족된다.

셋째, 이론의 연구대상은 실제의 현상이며 실증가능해야 한다. 이론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것이므로 경험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논리의 결과에 의한 예측이 현실에서 검증되어 질 수 없다면 이는 이론이 될 수 없다.

넷째, 이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즉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가설들은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는 것은 그 가설이 기존의 이론에 논리적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 근거가 결여된 이론은 단지 직감이나 추측에 불과하기 쉬우며, 또한 이론은 그 체계성으로 인해 축적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없는 직감이나 예측은 결코 축적될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이론이 실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론은 현실 또는 현상 즉, 실체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노력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단지 이론은 실제의 현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단순화 과정에서 오는 함축성의 결과로 구체적이며 특수한 상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그 분야의 이론이 세분화되어 발전되어 있지 못함에서 오는 결과이거나 그 이론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즉, 정밀도가 낮음으로 인한 오차의 한계가 큰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현상에 대해 이론가들의 무관심 또는 정보부족으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理論-實際 不一致論이 대두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론과 실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궁금해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의 시도가 없었을 뿐이다. 아울러 어떤 이론의 설명영역이 벗어나는 곳에 적용 또는 응용되었을 때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이론이 현실적 효용을 지니려면 효율성(efficiency)이 높아야 하며, 실무적 현상이나 실제 상황과 높은 관련성(relevance)을 가져야 한다. 즉, 한 변인으로 다른 변인을 예측할 때의 예측된 변인의 오차가 적어야 하며, 이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분야가 실무와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실무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이론정립 과정과 설명영역

이론정립 과정은 이론단위의 선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론단위는 개념이나 변인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상들 사이에서 가상된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 이론단위가 선정되면 귀납법이나 연역법을 통하여 두 개 이상의 이론단위들간에 상호관련성을 예측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명제(proposition)라 부른다. 명제는 논리의 결정

체로서 분석적 진리(analytical truth)를 대변하며 실증의 대상이 된다. 명제가 실증되어지기 위해서 명제에 사용된 각 이론단위들을 측정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전환하여 실증 가능한 형태의 명제 즉 가설(hypothesis)을 설정하게 된다. 설정된 가설이 실증적 진리(empirical truth)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설은 분석적 진리 그리고 실증적 진리로서의 검증을 통해 과학적 진리(scientific truth)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검증되어진 가설은 이론으로 불리워지며 다양한 형태의 재검증을 거쳐 원리 및 법칙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정립된 이론들은 이론의 효율성의 법칙(efficiency of law)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Dubin 1978). 이론의 효율성이란 한 이론단위의 변화가 다른 이론단위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할 때 그 오차의 한계를 말하며, 그 한계가 좁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론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단계는 有無(presence-absence) 단계로 이론단위 A가 나타나면 이론단위 B도 나타난다는 식의 이론을 의미한다. 두번째 단계는 方向性(directionality)의 단계로 두 이론단위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목록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온라인목록 이용도가 높다는 식의 두 이론단위간의 관계의 방향성까지 설명되는 효율성을 말한다. 세번째 단계는 共變化(covariation) 단계로서 둘 이상의 이론단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장서비율과 이용율 사이에는 적은 분량의 장서가 높은 이용율을 차지하는 쌍곡선 분포 형태와 같다는 식의 이론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變化率(rate of

change)의 단계이다. 이는 한 이론단위의 변화가 다른 이론단위의 변화하는 정도 즉 변화율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수를 알면 X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Lotka의 저자의 생산성과 정보유통의 규칙성과 같은 이론을 의미한다.

이론은 발전할수록 유무의 단계에서 변화율의 단계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곧 이론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학문이나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는 이 네 가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 이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론들이 주로 어떤 효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봄으로써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및 학문은 효율성이 높은 이론들을 개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론은 비평을 통한 반증에 의해 사회다윈주의(social Dawinsim)적인 적자생존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그러나 때로는 혁신적으로 또는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현상을 보는 관점, 아이디어 또는 방법이 새로울 때 나타난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개념 또는 사고방식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연구 진행방법을 제안하거나,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급진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다. Kuhn(1962)에 의하면 중요한 학문발전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paradigm shift)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변화의 정도가 매우 급진적일 경우 큰 패러다임(Kuhn paradigm)이라고 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약간 수정했을 경우 패러다임 변형(paradigm

variation)이라고 한다. 큰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했을 경우는 과학의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이론연구가 이와같은 급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가능하다. 즉 독특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관점들에 의해 나름대로의 연구흐름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은 그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설명영역(domain)의 한계(boundary)가 있다. 그 한계는 이론을 구성하는 이론단위의 성질과 그 이론단위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문도서관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분석은 전문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추구행위에 그 설명영역이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설명영역을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까지 확장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반화시키려면 그 이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그 이론의 확장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 후에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론 A와 이론 B가 각각 좁은 설명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론단위들간의 상호작용이 동일하다면, 이론 A와 B는 합쳐져서 제3의 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때 제3의 이론의 설명영역은 이론 A와 이론 B의 설명영역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더 넓은 설명영역으로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이론 A를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재검증해 본 결과 그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면 그 이론 A의 적용가능 범위는 각종 도서관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렇듯 어떤 이론의 한

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을 우선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의 문화환경에서 문헌이나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이론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확장 타당성에 관한 검증없이 일반화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설명영역을 무조건 확장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 연구된 문헌정보학 이론은 미국내의 환경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정립되었기에 그 한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공유되는 학습된 신념이나 전통 그리고 행동의 지침을 이루는 총체를 일컫는 말로서 특정 이론을 다른 문화의 사회현상에 여과작용 없이 일반화시키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

### 2.3 문헌정보학 연구와 연구방법론

인간의 연구활동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부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보다 완벽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방법론(scientific research method)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곧 계획에 의거 조직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으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및 해석을 통한 신뢰성 높은 연구를 행하는 과정으로, 사회제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일반성(generality)의 발견으로 예측(prediction)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반적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최근에 발달한 정보학 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관찰 가

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 타당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 분야”(정동열 1992, 16)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대상을 크게 전문봉사적 측면, 기술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문봉사적 측면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의 정보시스템이나 정보봉사, 정보네트워크 구조 등과 관련된 정보 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연구이고, 기술적 측면은 정보산업이나 정보처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한 연구이며, 과학적 측면은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처리, 계량정보학 등과 관련된 정보이론과 실험에 중점을 둔 연구로 설명된다(정동열 1992, 16-7).

그러나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연구는 이론개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질적 불균형 및 방법상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가 아니라 견해를 밝히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일반적 도서관 현상에 대한 서술적이며 현황 설명적인 연구와 지엽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오고 있다. 타당성있는 연구대상의 설정과 함께 연구목적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개발과 학문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최근 문헌정보학계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개념적 체계를 구비한 창조적인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학문적 성장과 연구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에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research)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 혹은 탐색을 의미하며,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론의 생성과 검증에 있기 때문에 이론이 구성하고 있는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규명하여야 한다. 방법론(methodology)이란 특정 학문의 성격에 대한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 바탕위에서 지식의 습득 방법이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메타이론적 접근(meta theoretic approach) 혹은 이론적 접근을 일컫는다.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지칭되는 현대의 방법론은 실증주의나 행동과학주의로 대표되는 표준과학관(standard view of science)의 논리에 기초하여 인식의 객관성과 과학적 일반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관계의 기술과 규명을 위한 연구에서 현상이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며 이때 방법론이 도입되게 된다. 이론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시에 여러가지 합당한 방법론이 고려되지만 어느 특정 방법론이 최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방법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판단이 있을 수 없으며, 방법론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어진 연구문제나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하며 이론개발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설정의 근본 목적은 제시된 가설이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모든 현상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Ⅲ.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실증적 분석

#### 3.1 분석대상 및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실질적으로 학계의 연구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의 3개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圖書館學 제1집(1970년)-제23집(1992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情報管理學會誌 제1권 제1호(1984년)-제9권 제2호(1992년), 그리고 서지학회의 書誌學研究 제1집(1986년)-제7집(1991년)에 발표된 연구논문 총 338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 방법은 3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논문 수와 연구자의 유형별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제II장의 이론정립과 연구방법론 단계에서 고찰한 (1) 연구주제, (2) 연구방법, (3) 가설설정, (4) 자료수집방법, (5) 자료분석방법(통계기법) 그리고 (6) 이론의 효율성의 순서로 분석하고 있다.

#### 3.2 연구논문의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

##### 3.2.1 문헌정보학 연구 추이

우리나라에서 1970년도에 圖書館學 제1집이 발간된 이래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논문생산은 주로 1985년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4년에 정보관리학회지가 그리고 1986년에 서지학연구가 창간됨으로써 1985년과 1989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를 보면 전체의 약 80%를 보이고 있다.

연구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교수, 사서, 학생,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계산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포함) 교수들이 27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의 73.3%를 차지함으로써 월등히 높은 연구의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3개 학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교수로서 학생이나 사서들에게는 활발한 발표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다음이 각종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나 정보관리자로서 약 1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단절성을 의미할 수 있어 실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이론 적용 결과나 이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지적함으로써 학계와 실무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문헌정보학 연구의 연도별 추이

단위: 편(%)

학 회 지	70-74	75-79	80-84	85-89	90-92	계(%)
도서관학	14	17	29	51	55	166( 49.1)
정보관리학회지	-	-	10	60	41	111( 32.8)
서지학연구	-	-	-	32	29	61( 18.1)
계(%)	14(4.2)	17(5.0)	39(11.5)	143(42.3)	125(37.0)	338(100.0)

〈표 2〉 연구자의 연도별 분포

단위: 편(%)

연구자	70-74	75-79	80-84	85-89	90-92	계(%)
교수	11	13	35	103	112	274( 73.3)
사서	3	5	4	24	20	56( 14.9)
학생	-	-	1	11	2	14( 3.5)
기타, 미상	-	-	1	25	5	31( 8.3)
계	14	18	41	163	139	375*(100)

\*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 3.2.2 연구주제 동향

연구주제의 분류는 최근에 Jaervelin과 Vakkari(1990)에 의해 연구된 분류기준을 근거로 우리 실정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3〉은 크게 12개 항목에 따른 주제별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분석시 경우에 따라 복수의 주제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단일주제 분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3개 학회지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분야는 분석서지학이 전체의 15.7%, 정보검색 관련 연구 9.8%, 분류 및 색인분야가 8.9%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서지학이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는 3개 학회지 중 書誌學研究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이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사 혹은 전적사, 목록, 문헌정보학 교육과 이용, 이용자 연구 순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분야로 자료관리, 장서개발, 그리고 색인과 자동화 관련 주제분야는 80년 이후부터 연구되고 있으며, 계량정보학과 행정 및 경영분야는 85년 이후에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경우 정보추적과 검색분야가 총 105편의 연구로 31.1%를, 서지학 분야가 58편으로 17.2%, 그리고 정보봉사 및 활동이 52편으로 15.4%를 차지하게 되어 이 세

분야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정보이론과 같은 분야는 거의 미미할 정도의 연구에 그친 실정이다.

주제별 연구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교수들은 〈표 3〉의 연구주제 동향과 마찬가지로 정보추적 및 검색(83명, 22.1%), 정보봉사 및 활동(42명, 11.2%), 그리고 서지학(39명, 10.4%) 순으로 많이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소주제 분야로 나누어 보면, 분류 및 색인, 목록, 도서관사, 문헌정보학 교육, 정보검색, 그리고 이용 및 이용자 순으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사서의 경우는 분석서지학, 정보검색, 분류 및 색인, 목록, 자동화 순으로 학계의 관심인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교수와 연구분야가 거의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개발이나 실증적 분석보다는 실무적인 문제해결이나 응용에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3 연구방법 동향

연구방법의 유형은 통상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10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논문에서 운영연구는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9가지 유형으로 조사



〈표 3〉 연도별 연구주제 동향

단위: 편(%)

주 제	70-74	75-79	80-84	85-89	90-92	계(%)
문헌정보학 일반	2	2	-	10	5	19( 5.6)
전문직	2	1	-	1	2	6( 1.8)
도서관사/전적사	-	3	3	14	6	26( 7.7)
저작권	-	-	2	-	-	2( 0.6)
연구방법론	-	1	1	4	1	7( 2.1)
정보이론	-	1	-	-	3	4( 1.2)
문헌정보학 교육	1	2	5	5	8	21( 6.2)
서지학						
체계서지학	1	1	-	1	2	5( 1.5)
분석서지학	3	1	1	22	26	53(15.7)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	-	-	5	6	11( 3.3)
자료관리	-	-	3	1	2	6( 1.8)
장서개발	-	-	4	1	1	6( 1.8)
참고 정보봉사	1	-	2	7	2	12( 3.6)
이용교육/독서지도	-	-	-	3	1	4( 1.2)
열람 및 대출	-	-	-	-	1	1( 0.3)
건물 및 비품	-	-	1	-	-	1( 0.3)
협동체제	1	1	-	3	5	10( 3.0)
기타 봉사 및 활동	-	-	-	1	-	1( 0.3)
정보축적 및 검색						
목록	2	2	3	6	11	24( 7.1)
분류 및 색인	-	-	5	11	14	30( 8.9)
정보검색	-	1	2	22	8	33( 9.8)
자동화	-	-	1	9	4	14( 4.1)
정보 유통 및 배포	-	-	-	2	2	4( 1.2)
이용 및 이용자	1	1	5	4	9	20( 5.9)
계량정보학	-	-	-	9	4	13( 3.8)
기타 관련분야	-	-	1	2	2	5( 1.5)
계	14	17	39	143	125	338(100.0)

〈표 4〉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교차분석

단위: 명(%)

주 제	교 수	사 서	학 생	기 타	계(%)
문헌정보학 일반	15	4	1	1	21( 5.6)
전문직	6	-	-	-	6( 1.6)
도서관사/전직사	22	2	-	2	26( 6.9)
저작권	2	-	-	-	2( 0.5)
연구방법론	7	-	-	-	7( 1.9)
정보이론	4	-	-	-	4( 1.1)
문헌정보학 교육	22	-	-	1	23( 6.1)
서지학					
체계서지학	5	-	-	-	5( 1.3)
분석서지학	34	10	5	4	53( 14.1)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10	1	-	1	12( 3.2)
자료관리	3	4	1	-	8( 2.1)
장서개발	4	2	-	-	6( 1.6)
참고 정보봉사	9	2	-	1	12( 3.2)
이용교육/독서지도	4	-	-	-	4( 1.1)
열람 및 대출	1	-	-	-	1( 0.3)
건물 및 비품	1	-	-	-	1( 0.3)
협동체제	9	-	-	1	10( 2.7)
기타 봉사 및 활동	1	-	-	-	1( 0.3)
정보추적 및 검색					
목록	23	6	-	-	29( 7.7)
분류 및 색인	28	6	2	1	37( 9.9)
정보검색	18	10	4	8	40(10.7)
자동화	12	5	-	7	24( 6.4)
정보 유통 및 배포	3	-	-	1	4( 1.1)
이용 및 이용자	17	3	-	-	20( 5.3)
계량정보학	11	1	1	1	14( 3.7)
기타 관련분야	3	-	-	2	5( 1.3)
계	274	56	14	31	375*(100.0)

\*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되어 있다. 연구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용한 경우는(총 21건) 각각 이용한 방법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다.

〈표 5〉의 연구방법 추이를 보면, 문헌연구가 142편(40%), 서지학적 방법이 68편(19%), 그리고 서베이가 40편(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시

스팀 분석/설계, 역사적 연구 순으로 되어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증적 분석을 통한 이론정립보다는 문헌고찰이나 이론 및 사적고찰에 그친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이론정립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정보

〈표 5〉 연구방법 추이

단위: 편(%)

연구 방법	70-74	75-79	80-84	85-89	90-92	계(%)
역사적 연구	-	3	4	15	7	29( 8.1)
실험연구	-	-	3	12	8	23( 6.4)
서베이 연구	1	1	9	16	13	40(11.1)
사례연구	-	-	3	3	4	10( 2.8)
평가연구	-	-	-	4	1	5( 1.4)
문헌연구	9	10	18	46	59	142(39.6)
계량정보학적 연구	-	-	-	8	3	11( 3.1)
서지학적 방법	4	2	2	29	31	68(18.9)
시스템 분석/설계	-	1	2	18	10	31( 8.6)
계	14	17	41	151	136	359*(100)

\* 복수의 연구방법 사용시 개별적 계산으로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표 6〉 연구자와 연구방법의 교차분석

단위: 명(%)

연구 방법	교수	사서	학생	기타	미상	계(%)
역사적 연구	23	4	-	1	1	29( 7.3)
실험연구	17	6	1	1	1	26( 6.6)
서베이 연구	41	3	-	1	1	46(11.6)
사례연구	4	7	-	6	-	17( 4.3)
평가연구	4	-	1	4	-	9( 2.3)
문헌연구	130	13	3	3	1	150(37.9)
계량정보학적 연구	10	1	-	-	1	12( 3.0)
서지학적 방법	46	10	6	5	1	68(17.2)
시스템 분석/설계	19	11	3	3	3	39( 9.9)
계	294	55	14	24	9	396
(%)	(74.2)	(13.9)	(3.5)	(6.1)	(2.3)	(100.0)

개발이 요구되는 실험이나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별 선호되는 연구방법은 <표 6>에서 보는 바와같이 문헌연구, 서지학적 방법, 서베이 연구 그리고 역사적 연구, 시스템 분석/설계가 교수와 사서에게 비슷한 비율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의 유형을 연구주제와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주제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그의 특징적인 현상은 서지학 연구는 서지학적 방법을 이용교육/독서지도는 실험연구를, 계량정보학은 계량적 분석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검색 분야는 시스템적 연구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4 가설설정 여부

분석대상 총 338편의 논문 중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논문은 단지 21편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연구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이용교육/독서지도가 4편, 정보검색과 자동화가 각각 3편씩, 이용 및 이용자, 계량정보학, 협동체제, 참고정보봉사, 행정 및 경영이 공히 2편씩, 그리고 전문직이 1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부분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탐색적인 연구이거나 문헌고찰에 이어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로서 이론정립의 단계에서 본다면 하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 3.2.5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방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질문지, 면접, 관찰은

서베이 연구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류되며, 기존자료는 통계나 연감 등의 기록자료를 주로 자료수집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용문헌은 선행문헌에서 문헌이나 저자의 인용관계 자료를, 그리고 사료는 분석서지학이나 역사적 연구에서 사적인 사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 8>의 자료수집방법을 보면 사료, 질문지, 그리고 기존자료의 이용이 각각 42.5%, 22.0%, 20.4%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찰이 2편밖에 되지 않음은 연구실행과 분석상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인용문헌은 85년 이후에 계량정보학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의 트랜잭션 로그방법도 3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 3.2.6 자료분석방법

<표 9>에서 연구자별 자료분석시에 사용된 자료분석방법, 즉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분석기법을 보면, 4분의 1정도만이 간단한 기술통계(55편, 16.3%)나 추리통계(35편, 10.4%)를 이용하고 있다. 기술통계 사용은 평균, 분산, 서열관계 등에 국한되며, 추리통계는 T-검증, 분산분석, 카이자승,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추리통계기법은 대부분 교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서들도 간단한 기술통계를 다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리통계분석을 이용한 35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통계분석기법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정보봉사 및 활동, 이용 및 이용자, 전문직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정보학 분야는 주로 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차원축적기법 등이 이용되는 관계로 다변량분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추후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고 이들의 이

〈표 7〉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이용순위

단위: 편(%)

주 제	전 체	1 순 위	2 순 위
문헌정보학 일반	19	문 헌 15( 78.9)	서베이 2(10.5)
전문직	6	문 헌 4( 66.7)	서베이 2(33.3)
도서관사/전직사	37	역 사 26( 70.3)	서 지 11(29.7)
저작권	2	문 헌 2(100 )	-
연구방법론	7	문 헌 7(100 )	-
정보이론	4	문 헌 3( 75.0)	실 험 1(25.0)
문헌정보학 교육	21	문 헌 14( 66.7)	서베이 7(33.3)
서지학			
체계서지학	5	서 지 5(100 )	-
분석서지학	53	서 지 52( 98.1)	문 헌 1( 1.9)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12	문 헌 8( 66.7)	서베이 4(33.3)
자료관리	8	문 헌 4( 50.0)	사 례 3(37.5)
장서개발	6	문 헌 4( 66.7)	서베이 1(16.7) 시스템 1(16.7)
참고 정보봉사	14	문 헌 5( 35.8)	서베이 3(21.4)
이용교육/독서지도	4	실 험 4(100 )	-
열람 및 대출	1	문 헌 1(100 )	-
건물 및 비품	1	문 헌 1(100 )	-
협동체계	10	문 헌 9( 90.0)	서베이 1(10.0)
기타 봉사 및 활동	1	실 험 1(100 )	-
정보축적 및 검색			
목록	24	문 헌 21( 87.5)	시스템 2( 8.3)
분류 및 색인	30	문 헌 16( 53.3)	시스템 7(23.3)
정보검색	33	시스템 14( 42.4)	실 험 9(27.2)
자동화	17	문 헌 5( 29.4) 사 례 5( 29.4)	서베이 4(23.5)
정보 유통 및 배포	4	문 헌 2( 50.0)	서베이 1(25.0) 시스템 1(25.0)
이용 및 이용자	22	서베이 13( 59.1)	문 헌 7(31.9)
계량정보학	13	계 량 11( 84.7)	문 헌 1( 7.7) 서베이 1( 7.7)
기타 관련분야	5	문 헌 4( 80.0)	시스템 1(20.0)
계	359		

〈표 8〉 자료수집방법 추이

단위: 편(%)

자료수집방법	70-74	75-79	80-84	85-89	90-92	계(%)
질문지	-	1	9	14	17	41(22.0)
면접	-	-	2	5	6	13( 7.0)
관찰	-	-	-	1	1	2( 1.1)
기존자료	1	1	1	8	27	38(20.4)
인용문헌	-	-	-	6	3	9( 4.8)
사료	3	3	3	37	33	79(42.5)
기타	-	-	-	2	2	4( 2.2)
계(%)	4(2.2)	5(2.7)	15(8.1)	73(39.2)	89(47.8)	186(100)

〈표 9〉 연구자별 자료분석방법

단위: 편(%)

연구자	비이용	기술통계	추리통계	계(%)
교수	175	38	32	245(72.5)
사서	39	9	1	49(14.5)
학생	13	-	1	14( 4.1)
기타	21	8	1	30( 8.9)
계(%)	248(73.4)	55(16.3)	35(10.4)	338(100.0)

〈표 10〉 연구주제별 통계분석기법 사용빈도

단위: 편

주제	T-검증	분산분석	카이자승	상관관계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계
문헌정보학 일반	-	-	-	1	1	-	2
전문직	1	2	1	-	1	1	6
정보이론	-	-	-	1	1	-	2
문헌정보학 교육	1	-	-	1	1	-	3
정보봉사 및 활동	4	4	3	2	-	2	15
정보추적 및 검색	-	1	1	1	-	1	4
이용 및 이용자	2	2	4	3	2	2	15
계량정보학	-	1	-	3	-	6	10
계	8	10	9	12	6	12	57*

\* 복수기법 이용으로 전체수에 차이가 있음.

학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론적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다양한 분석기법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3.2.7 이론의 효율성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된 이론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bin이 제시한 네 가지 효율성 기준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가 <표 11>이다. 우선 이론의 효율성을 적용할만한 연구논문은 22편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보다는 현상을 기술하거나 다른 이론을 정리 설명하는 식의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관계의 유무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이고 공변화나 변화율을 설명하는 단계의 이론은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연구된 이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 Ⅳ.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의 방향

### 4.1 이론학문적 발전방향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을 위한 이론적 내지 학문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은 기존 연구를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측면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을 통한 혁명적 개발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은 기존의 이론을 비평, 반증하는 적자생존의 역학시스템하에서 발전하게 되며 아울러 이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법칙이나 진리에 가까운 설명을 할 수 있다. 한국 문헌정보학 이론의 개발도 그 예외는 아니다. 제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은 체계적인 형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형태로 산재해 있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연구자

<표 11> 연구주제와 이론의 효율성

단위:편

주 제	관계유무	방향성	공변화	변화율	계
전문직	1	-	-	-	1
정보이론	-	-	1	-	1
행정 및 경영	-	1	-	-	1
참고 정보봉사	1	-	-	-	1
이용교육/독서지도	3	-	-	-	3
협동체제	-	1	-	-	1
분류 및 색인	3	-	-	-	3
정보검색	-	-	1	-	1
자동화	-	2	-	-	2
이용 및 이용자	3	-	-	1	4
계량정보학	4	-	-	-	4
계	15	4	2	1	22

들의 사명이다. 이러한 연구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영감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탐색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탐색적이며 기술적인 연구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이 학문적 영감을 제시하여 연구문제를 명확히 규정해 주거나, 정의를 명확히 내리거나, 분류를 논리적으로 하여 미래연구의 방향을 적절히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외국이론의 원론적인 소개에서 점차 벗어나서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을 개발한다는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한국적 문헌정보 현상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많은 일반론자의 예리한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이론정립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여야 한다. 제III장의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연구중 체계적인 이론정립의 방식에 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 결과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정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임기웅변적인 문제해결식의 조사는 실무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지식이 축적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지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무의 관심거리인 문제 해결식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론은 정립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이론은 효율성이 높으면서 실무에의 관련성도 높아야 한다. 만약 문헌정보학계에서 실무와는 무관한 외국의 이론정립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실무의 당면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이론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연구주제는 가능하면 실무에서 궁급해 하는 현상에 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론개발은 실제적인 현상의 귀납으로부터 연역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발전한다. 문헌정보학 이론도 연역적 이론과 실무의 피드백이 서로 교차할 때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외국이론은 여과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합당한 이론화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과과정은 이론의 설명영역을 확장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 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 또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없다면 그 이론의 수정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수정적용도 불가능할 경우에 그 이론은 외국 현상만을 설명하는 특수한 이론이므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와 같은 여과과정을 거쳐 일반화하거나 수정적용이 된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화가 되었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의 집합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제III장의 분석을 근거로 한국 문헌정보학 이론이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을 논의한 이론의 효율성과 관련성의 관점에서, 이론의 효율성과 관련성을 각각 高低로 양분하여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효율성-추구형(efficiency pursuing type)은 이론의 효율성은 높은 반면 관련성은 낮은 유형으로 외국의 효율성 높은 이론만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관련성-추구형(relevance pursuing type)은 이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실무에의 관련성이 높은 이론을



의미한다. 초보형(naive theory type)은 효율성과 관련성이 모두 발달되어 있지 않은 초보단계의 이론 형태를 말하며, 효율적-관련형(efficiency & relevance pursuing type)은 효율성도 높고 관련성도 높은 이론의 유형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들은 앞 장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정립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실무에서 궁급해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초보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효율성과 관련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효율적-관련형이어야 한다.

다섯째,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을 세련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계적 기법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측정된 연구단위의 신뢰도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결과치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는 곧 어떤 연구에서 이론단위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가 한국에서도 항상 최선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선과 수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가장 좋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논문의 건설적 비평에 의한 인용은 될수록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연구된 이론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 개발시 한국에서 개발된 이론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지식의 체계적 축적에 위배된다.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논문의 논리가 틀렸거나 신빙성이 없을 때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그 틀린 점이나 부족한 점을 건설적으로 비평할 때 그 분야의 오류가 바로 잡아지며 이론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개발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지속적인 연구 관찰에 의해 가능하며, 그러한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문헌정보학 현상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개념 또는 사고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문헌정보학 현상을 탐색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때 새로운 이론단위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새로운 이론단위는 전체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류할 때 발견될 수 있다. 새로운 이론단위가 발견되고 이 이론단위를 이용한 분석이 유효하다면 새로운 연구흐름의 제시는 물론 패러다임의 변환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론단위는 이론의 분류, 확장, 세분화, 귀무가설로부터의 유추 등을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적 문헌정보학 현상에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에 잘 이용되지 않았던 귀납식의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본다든가 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즉 기존 이론과 논리체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개발할 수 있다.

다섯째, 패러다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즉 어떤 것

이 훌륭한 아이디어인지를 알고, 연구하는 분야의 기존 이론들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이론과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방식의 개발과 전달이 가능한 것이다.

#### 4.2 운영실무적 발전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혹은 학문적 발전방향에 대해 효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운영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주제선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결성을 제안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은 효율성과 관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적-관련형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유형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성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학계의 학자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당면한 연구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연구주제를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연구자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회나 학회지 또는 논문집 등에서 특별주제를 선정할 때 단지 몇 달전에 즉흥적으로 정하지 않고 미리 1년정도 전에 지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 제시한 위원회에서 연구주제가 선정되면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연구도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계는 분석능력을 제시하고 실무계는 재원과 자료 및 경험을 제공하

는 등의 협력을 통해 양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의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되 다양한 소주제분야를 다수의 소위원회별로 동시에 발표 토의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자의 흥미나 관심분야에 따라 연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셋째, 연구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총 338편의 분석대상 논문중 단지 29편(8.6%)만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전체연구의 77%가 재원이 부족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궁핍은 결국 학계에서 행한 대부분의 연구가 2차자료를 사용했거나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의 논문을 양산시킨 주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바람직한 효율적-관련형 이론이 개발될 수 없을 것이다.

## V. 결 론

급속적으로 팽창해가는 정보사회에서 수많은 정보화 현상들을 막연한 경험 지식이나 무분별한 외국이론의 적용만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한국적 문헌정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실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론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이란 학계의 이론가만의 연구대상이 아니고 실무자들의 당면한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론의 정립없이는 모든 지식은 비체계적인 지혜의 모음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리의 문헌정보 이론은 우리의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효율적-관련형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문과 실무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Libraries 43: 312-19.

### 참고문헌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정동열. 1992.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서울: 구미 무역 출판부.
- Dubin, R. 1978. Theory Building. revised ed. New York: The Free Press.
- Hunt, S. D. 1991. Modern Theory: Critical Issu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Cincinnati, OH: South-Western Publishing Co.
-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2): 160-65.
- Odi, A. 1982. "Creative Research and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College and Research